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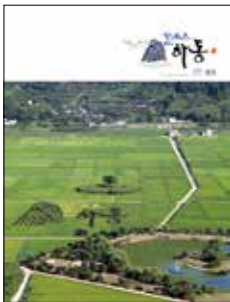
2018 가을호
Autumn
<http://www.hadong.go.kr>



Contents

- 03 행정
- 12 이슈
- 13 의회
- 15 알림

2018 | 가을호
Autumn | 가을호



발행처 하동군
 발행일 2018년 가을
 편집 기획예산담당관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전화 055)880-2045
 팩스 055)880-2019
 www.hadong.go.kr

하동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주요 업무

기획예산담당관	군정기획, 예산 편성 운영 홍보, 감사, 법무, 규제개혁 자매결연, 봉사단체 지원	본청 2층 (하동읍 군청로 23)
----------------	---	-----------------------

■ 행정지원국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인사, 여론 아동 청소년 평생학습 장학재단	일자리상담 전통시장육성 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긴급복지지원 주민생활지원	지방세 납부 공사용역계약 공시지가 국공유재산	주말공연 문화재지정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토지정보 여권 부동산실거래 가로등신고	환경오염신고 생활쓰레기 공중화장실 생태과학관
본청 2층 (군청로 23)	본청 3층	본청 1층	본청 1층	본청 3층	본청 1층	본청 2층

■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복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
관광마케팅 팸투어 축제 화개장터 최참판댁	광고물 건축신고 개발행위 도시재생 건축민원	공유수면 어선등록 재첩 국가하천 점용허가	안전관리 재난복구 민방위 풍수해보험 지방하천정비	산림조성 산불방지 자연휴양림 가로수관리 도로변꽃길	건설기계 지하수 농지개량 도로관리 자동차관리	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 연구단지조성 신도시개발 두우배후단지	상하수도 물관리 급수 하수처리시설 오수, 분뇨
별관 1층 (군청로 23)	본청 1층	별관 1층	별관 2층	별관 1층	별관 2층	별관 2층	신기공항길 298-23

보건소	공중보건, 방역소독, 암 조기검진, 방문진료, 금연 예방접종, 치매, 건강검진, 식품영업 허가, 위생지도	하동군보건소 (군청로 31)
------------	---	--------------------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경관보전 직불제 양곡수급관리, 축산, 가축방역 농기계 대여	농특산물수출 유통 마케팅 농산물가공지원 포장디자인개발	농가민박 향토음식발굴 귀농귀촌 드론활용	친환경농업 원예, 과수 녹차산업육성 야생차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적량면 한옥정길 91)			

문의처 행정지원국 행정과 ☎880-2153

전통 어업 ‘섬진강 재첩잡이’ 를 지켜라

하동군, 광양시와 공동 ‘섬진강 재첩잡이 어업’ 보전 노력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 위해 온힘



지난해 하동 전통 차농업이 UN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전통방식의 섬진강 재첩 어업에 대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이 추진된다. 하동군은 섬진강 이웃사촌 광양시와 공동으로 청정 1급 수의 섬진강 하류에서 이뤄지는 ‘섬진강 재첩잡이 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제도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는 전통 어업자원을 발굴·보전·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15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할 중요한 어업 기술과 생물 다양성 등을 가진 어업유산을 보전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도입됐다.

전통 어업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인류에게 풍부한 식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풍부한 지식과 문화를 보유하고, 계속 진화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어업유산이 현대 사회에서 점차

소멸되거나 현저히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통해 관리·보존하고 있다.

재첩 채취 어업인들 크게 급감해 보전 시급

현재 섬진강 하류에서는 하동·광양지역 어업인이 손틀방류(일명 거렁이)를 물속에 끌고 다니면서 재첩을 잡는다. 예전에는 3000여 명이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았으나 지금은 인원이 크게 줄어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아 보전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양 시·군은 전통 방식의 ‘섬진강 재첩잡이 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시키기로 하고 7월 20일 해양수산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8월 1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한 데 이어 9월 중으로 2차 현장 확인과 3차 최종 평가를 거쳐 올 연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섬진강 재첩잡이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면 바다화 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섬진강 하류의 재첩 보전은 물론 동서 화합의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선7기 해외시장에 첫발 딛는다

3개국서 농·특산물
1350만달러 수출협약 체결
해외 마케팅 본격 돌입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써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외 마케팅에 나선 하동군해외시장개척단이 7월 25일~8월 4일 몽골·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에서 하동 농·특산물 1350만달러(한화 약 162억원) 수출협약과 25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윤상기 군수를 단장으로 한 해외시장개척단은 이권기 농협 군지부장, 오흥석 지리산청학농협장, 정명화 옥종농협장, 이강삼 슬로푸드 대표, 최경태 울림 대표, 조은우 복을만드는사람들 대표, 노장식 자연향기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윤상기 군수, 몽골 대통령과 면담 후 판촉전 진행

윤상기 군수는 첫 방문국인 몽골에서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과 1대1 면담을 갖고 하동군의 몽골마을 설립 등 북방 유목문화 전파를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 증진 방안을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몽골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몽한가이마트에서 하동 농산물 판촉전을 열어 십진강쌀·감말랭이·딸기·녹차 등 30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농·특산물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

말레이시아서 하동 관광과 농·특산물 홍보

두 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여행사, 언론매체, 쿠



알라룸푸르 여행협회, 한국관광공사 지사, 온라인 블로거, SNS셀럽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관광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최장 금오산 집와이어를 비롯해 십리벚꽃길, 최참판댁, 슬로시티 악양 등 하동의 주요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지난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하동녹차를 이용한 녹차화장품, 녹차라떼, 지역 농·특산물 홍보도 병행했다.

시장개척단은 현지의 영향력 있는 아웃바운드 여행사 상품개발 담당자와 언론매체, 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관광설명회를 통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알프스 하동의 개별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서 1050만달러 수출협약 체결

마지막 방문국인 베트남에서는 베트남·호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하동 우수 농·특산물 1050만달러어치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하동군과 (사)하동군농수산물수출협회, (사)경남

농식품수출협회가 현지업체인 동서비나와 배즙·맛밤·매실엑기스·이유식·김 등 300만달러, 옥중농협이 바이오베지와 딸기 200만달러 수출협약을 맺었다.

또 지리산청학농협과 슬로푸드가 스마트K푸드와 건나물·배즙 등 195만달러, 슬로푸드와 울림, 복을 만드는 사람들, 녹차연구소, 자연향기 등 5개 업체가 동서비나와 감말랭이·배즙·맛밤·녹차 티백·김·치즈스틱 등 55만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호주에서 초청한 바이어 J&WAYS(대표 진광훈)가 농협 하동군지부와 배 300만달러를 호주로 수출하기로 협약했다.

시장개척단은 호치민 롯데마트에서 슬로푸드, 울림, 복을만드는사람들, 녹차연구소, 자연향기 등 10개 업체가 생산한 39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관측전을 벌여 1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또 호치민 이마트와 호치민 빅마트를 차례로 찾아 현지 소비자들의 주요 소비 품목과 수출 가능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인 뒤 귀국했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 개막

31일~9월 2일 송림공원·섬진강 일원에서 진행
23개 프로그램으로 역량 강화해 글로벌 문화 축제 도전



당초 7월 20일~22일 열기로 했다가 연일 35℃를 웃도는 폭염으로 무기한 연기된 제4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가 31일~9월 2일 사흘간 백사청송(白沙靑松)의 송림공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꽃길 따라! 물길 따라! 알프스 하동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섬진강문화 재첩축제는 △참여와 상생의 문화형 축제 △여름 대표 힐링축제 △글로벌 문화축제 △문화관광형 축제를 기본방향으로 대표·재첩·공연·수상·모래·연관 행사 등 2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섬진강 전체를 아우르는 하동만의 특색 있는 종합관광 축제로 승화시켜 알프스 하동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해 축제명칭을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에서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로 바꿔 축제의 역량을 강화했다.

축제기간 어떤 프로그램 즐길까

축제 첫회 때부터 대표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인기와 관심을 모았던 ‘황금(은) 재첩을 찾아라’는 첫날 오후와 둘째·셋째날 오전·오후 5차례 진행돼 순금 1돈짜리 황금재첩 200개와 은재첩 300개의 주인공을 만난다.

그리고 섬진강 이웃사촌 광양시·구례군 주민과 함께하는 ‘동서화합 상생의 줄다리기’가 영·호남을 잇는 섬진교에서 축제의 특별 이벤트로 마련된다.

화려한 개막식 후 축제 본격 시작

축제는 첫날 오후 3시 송림공원 앞 섬진강에서 펼쳐지는 ‘황금(은) 재첩을 찾아라’로 서막을 올린다. 오후 3시 30분 송림 숲속에서는 대표 프로그램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라’가 열린다.

이어 오후 4시 30분 ‘동서화합 상생의 줄다리기’가 섬진교에서, 읍면 남녀 팔씨름대회가 주무대에서 차례로 펼쳐진다.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 개막식이 오후 7시 주무대에서 열린다.

‘섬진강, 다음 100년의 꿈’을 테마로 한 개막행사는 하동 청소년예술단 ‘하울림’의 식전공연에 이어 주제공연 ‘영·호남 화합 드로잉 쇼’, 가수 울랄라세션, 하동진 등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로 섬진강 100년 미래를 보여준다.


둘째 날은 오전 10시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황금(은) 재첩을 찾아라’, ‘섬진강을 날아라’ 모형 글라이더대회,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보디빌딩 및 뷰티바디 시범경기, 하울림 공연, 하동청년회의소와 함께하는 치맥 페스티벌 등이 차례로 열린다.

마지막 날은 역시 오전 10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황금(은) 재첩을 찾아라’, 찾아가는 문화공연 ‘창작 타악’,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라, 모형 글라이더대회,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에 이어 오후 7시 ‘신인가수의 등용문’ 제7회 하동 정두수 전국가요제로 대미를 장식한다.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위한 준비 완료

상설·체험 프로그램으로 ‘섬진강 두꺼비를 찾아라’, ‘보물 열쇠를 찾아라’, ‘송림 힐링 프린지 공연’, ‘송림·섬진강·알프스하동 사진전’ 등이 마련된다.

그 외에도 재첩홍보 판매관 및 재첩시식 코너, 특산품 전시·판매장, 알프스푸드마켓존, 한우 판매장 등 먹거리·살거리 코너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세계축제도시이자 2018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육성축제를 넘어 글로벌 문화 축제의 도약을 목표로 준비하는 만큼 축제에 많이 참여해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독립만세"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21명 서훈 신청

하동군, 경남독립운동연구소와
광복 73년 만에 독립운동가 문건 공개
군청기록관 등 문서고 조사로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는 하동출신 4남매가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남편까지 항일투쟁을 벌였던 김계정(金桂正·여·1913~?) 선생과 부부가 함께 독립운동을 벌였던 제영순(諸英淳·여·1911~?) 선생 등 21명의 독립운동가 행적을 광복 73년 만에 찾아 정부에 서훈을 신청했다.

이번 독립운동가 발굴은 지난 3월 윤상기 군수와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이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군내 미발굴·미포상 독립운동가 찾기 전수조사를 2년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여성·부부·남매 등 21명 항일행적 찾아

정재상 소장은 “하동군과 함께 군청기록관과 13개 읍·면 사무소 문서고 등을 조사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조복금(趙福今) 선생 등 3명을 포함 부부 독립운동가와 조봉암(경기도 강화·민족운동가)과 함께 활동한 송봉우(宋奉瑀·1900~?) 선생 등 21명의 항일행적이 담긴 ‘수형인명부’ 등을 찾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굴한 문건 중에 김계정 선생은 하동출신 독립운동가 김계영·태영·두영 3형제의 여동생으로, 오빠들과 함께 4남매가 독립운동에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또 김계정은 남해군 고현면 출신 독립운동가 한인식(韓麟植)과 1938년 혼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식은 김계

정의 셋째 오빠 김두영과 동지이며 남해에서 독립투쟁을 펼치다 체포돼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김계정은 1931년 부산·대구를 중심으로 큰 오빠 김계영과 함께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힘써오다 1932년 대구에서 ‘반제반전 격문사건’에 연루돼 김계영과 함께 일본경찰에 검거됐다.

또 여성독립운동가 제영순은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하동출신 권대형(건국훈장 애족장·2005)·조복금·류인두 등과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체포돼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5개월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하동출신 독립운동가 전석순(지난 3



윤상기 군수와 정재상 소장이 서훈신청 전 독립운동가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1. 김계정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다 구속돼 고초를 겪은 조복금 선생
- 2.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위반으로 검거된 하동출신 여성독립운동가 제영순·김계정·조복금 관련 언론보도 (매일신보 1932. 7. 23.)



3. 송봉우 선생 수형인명부(1928)
4. 제영순 선생 수형인명부(1931)

월 서훈신청)으로, 1936년 훈인했다. 전석순은 국내와 일본에서 항일투쟁을 하다 일경에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하동에서 잇힌 항일영웅 송봉우 선생

또 하동출신 송봉우 선생은 민족운동가 조봉암 선생의 동지로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징역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복성회 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주도했으며, 국내에서는 조선청년동맹을 창립하고 조봉암과 함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또 그는 조선기근구제회를 결성 빈민구제에도 앞장섰다.

1931년 월간지 <비판>을 창간하고 1932년 여성잡지 <여인>을 창간해 사회 개혁과 여성인권운동에도 몸담았다.

1938년에는 서재필·이승만·안창호·한용운·조만식·병로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 최고의 잡지인 월간 <삼천리>에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상기 군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하동지역 독립운동가가 이번 발굴사업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열들의 큰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상 소장은 "이번에 서훈 신청한 독립운동가 21명 중 김계정을 포함한 11인은 독립운동과 관련해 이름 석자도 기록에 없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송봉우 등 10명은 활약상이 일부 알려졌지만 정작 하동지역 향토사에는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는 잇힌 항일영웅"이라며 "이분들의 흩어진 항일자료를 한데 모으고 정리해 서훈을 신청했는데 이들의 위국헌신이 국가로부터 온당한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정 지리산 하동 밤 1070만달러 수출한다

1525t→2016t 수출물량 해마다 늘어, 올해 수출목표 4330t 전년비 56.8% ↑

하동군은 올해 청정 지리산 일원에서 생산된 하동 밤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56.8% 늘어난 4330t으로 잡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민선6기 첫해인 2014년 하동 밤 1525t 288만달러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527t 360만달러, 2016년 2016t 505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2760t 687달러를 수출해 수출물량이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이는 지난해 밤 수출특화단지와 밤 재배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미국의 가공품 수출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중국의 생밤 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같은 수출신장에 힘입어 올해 밤 수출목표를 전년보다 56.8% 늘어난 4330t 1070만달러로 설정하고 8월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밤 생산단체 대표 1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상기 군수 주재로 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FTA 협상 가속화와 무역마찰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및 수출입 동향 등 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수출산업에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농식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중국의 생밤 시장과 미국의 가공품 수출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임산물 수출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수출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관측 행사 지원, 수출상품화 지원 등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지원책 확대를 통해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밤 까기 작업 기계화 등을 통해 비교적 장기유통이 가능한 깎밤·맛밤 등 1차 가공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노령화 밤나무 단지의 품종 개량, 폐원 밤나무단지 재생, 밤 저장시설 및 생산장비 지원, 항공방제 및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등 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밤은 지역 농·특산물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목인 만큼 농가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이라며 “올해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개발·생산·판매 원스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개소

31억원 투입해 적량면에 농특산물산업 전진기지 준공
농산물가공실·창업보육실 등 창업 위한 설비 마련

청정지역 하동에서 생산된 각종 농·특산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생산하고, 창업 교육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하동군은 지난 7월 23일 적량면 동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강당에서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상기 군수를 비롯해 신재범 군의회 의장, 이정훈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농수산물가공업체 대표, 농산물가공·창업반 교육생, 농산물가공연구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적량농악단의 식전 어울림 공연에 이어 내빈소개, 경과보고, 하동싱어즈의 축하공연,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공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적량면 동산리 한옥정길 94 일원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2층 연면적 1500㎡의 규모로 지난해 5월 착공 이후 1년 2개월 만에 완공됐다.

국비·지방비 등 30억 6000만원이 투입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1층에 농산물가공실·조리실습실·사무실, 2층에 창업보육실·세미나실·도서관·부대시설 등이 들어섰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이 매실·쌀·블루베리·딸기·배 등 지역 농·특산물로 잼·식초류·국수류·반찬류·칩류·차류·주스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생산·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한 창업 교육을 비롯해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농산물가공산업연구소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인 견학장소 및 예비귀농인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윤상기 군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특산물로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 가공 및 창업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농특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창업농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젠 하동에도 아기 울음소리 들려요

하동군민여성의원 개원 이후 첫 아이 탄생

지난 4월 하동군에 분만산부인과가 개설된 이후 첫 아이가 탄생했다. 하동군은 하동읍에 사는 문모씨가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 27분 하동군민여성의원(원장 한성천)에서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그동안 진주와 하동여성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 하동군민여성의원이 개원하면서 사전 출산 상담과 분만시설 견학을 한 뒤 이곳에서 출산 준비를 해왔다.

이날 하동군민여성의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3.16kg으로, 산모·아이 모두 건강하며 남편 전모씨와 사이에 셋째 딸이다.

원정출산 불편 덜고자 여성의원 개설

하동에서는 2015년 7월 하동여성산부인과의원이 개원해 그동안 외래진료를 해왔으나 분만시설이 없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인근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군과 여성산부인과의원이 산모들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지난 4월 분만시설을 갖춘 하동군민여성의원을 개설했다.

연면적 635㎡(약 192평) 규모의 여성의원은 외래진료실·처치실·수술실·입원실·신생아실·분만실 등의 시설과 초음파기·인큐베이터·태아감시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간호인력 6명의 의료진이 외래진료와 임신부의 출산을 돕고 있다.

하동군민 “아기야 건강하게 자라렴”

하동에서 첫 아이가 탄생하면서 악양면에 있는 사회적기업 예코맘의 산골이유식(대표 이천호)이 첫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며 월 30만원 상당의 8개월치 이유식 세트를 기증하기로 했다.

군은 군민여성의원 개원 이후 첫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덕담과 함께 축하꽃바구니와 출산축하용품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들의 의료수혜 접근성을 높여 여성의 건강증진과 인구증대 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장자제시 대표단 하동군의의회 방문

하동군의의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7명...교류 협력·관광지 탐방



중국 후난성 장자제(張家界)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명봉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장자제시 대표단 7명이 지난 8월 9~1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하동군을 방문했다.


장자제시 대표단은 2014년 하동군의의회를 장자제시 방문에 따른 답례 초청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양 도시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동을 찾았다. 장자제시 대표단은 첫날 환영 다과회에 참석한 뒤 다음 날 하동군의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가해 양 도시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상기 군수와 교류 후 주요 관광지 탐방

대표단은 또 이날 군수 집무실을 찾아 윤상기 군수와 양 도시의

발전방안 및 청소년의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이어 하동군의 주요 관광지인 금오산 집와이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신재범 의장과 전 의원이 주관한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군의의회 관계자는 “이번 장자제시 대표단 방문을 통해 하동군의의회와의 항구적인 우호관계 유지와 양 도시의 상호동반 발전, 교육·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의의회와 장가계시는 2012년 5월 우호협력에 관한 교류의향서와 2016년 5월 우호교류 관계협의를 체결하고 이후 상호 대표단 방문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01

화개면 부춘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본격 가동

17억원 투입 하루 최대 60t 처리... 섬진강 수질·주거환경 개선 효과

하동군 화개면 부춘마을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오수를 정화·처리하는 생활하수처리시설이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하동군은 청정지역인 섬진강 보전과 마을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6월 부춘마을 소규모 하수도시설 공사에 착수해 1년여의 공기를 거쳐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

부춘마을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재래식 정화조로 처리되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켜 하수처리장에서 법정수질 이하로 정화 처리한 뒤 방류한다.

하수처리장은 하루 최대 60t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부춘마을의 펜션 등 66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마을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를 폐쇄하고 화장실·싱크대·샤워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효과는 물론 가정에 설치된 개인정화조를 폐쇄함으로써 매년 부과되는 분뇨수거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02

옥종면 독거노인 2명에 행복보금자리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용마을·월항마을 장애인 행복보금자리 4·5호 선사

하동군 옥종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재희)는 행복릴레이 '사랑앓 보금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용마을 지적2급 독거노인 김모(73)씨와 월항마을 정신2급 독거노인 이모(68)씨에게 각각 행복보금자리 4호·5호를 선사했다.

김씨는 집 입구부터 방안까지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 건강을 위협받자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 청소를 설득해 왔으나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젊은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온 이씨도 본채와 동떨어진 옛날 그대로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느라 여간 힘든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김씨를 수차례 찾아 본인의 승낙을 얻게 됐고 지난 6월 28일 자체 회의를 거쳐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두 노인의 애달픈 삶을 마냥 지켜볼 수가 없어 폭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위원들이 쓰레기를 꺼내고 정



리·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깨끗해진 새로운 공간을 선물했다.

이씨 화장실은 부엌 옆에 공간을 마련해 수세식 화장실 공사를 시행했으며 시집오면서부터 옛날 화장실을 불편하게 다닌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

한편, 옥종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는 지역민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0월 두방마을 60대 독거노인가정 1호를 시작으로 지난 3월 영당마을 2호와 5월 원해마을 3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황천면 가로내 축제 개최

‘가로내 Happy cool summer’를 슬로건으로 28·29일 양일간 황천강 일원에서 제4회 가로내 여름축제가 열린다.

첫날 피서객과 함께하는 한마음 음악회는 면민의 화합과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 바라는 염원을 담아 축제장을 찾은 피서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로 마련된다.

축제를 전후해 물놀이 체험과 함께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된 황천강 고수부지에 오색의 우산 그늘막을 만들어 피서객과 지역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했다.

신생아·영유아 백일해 예방 접종 필수

하동군보건소는 ‘백일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백일해에 취약한 신생아·영유아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올들어 7월 현재 전국적으로 440명이 백일해에 감염됐으며, 이 중 경남지역에서는 전체 28% 121명이 감염됐다.

백일해는 ‘흡’하는 소리와 함께 14일 이상 기침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심할 경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침을 하게 되는데 감염력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신생아나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6개월 미만 영아가 걸리면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으로 발전한다.

신생아·영유아의 경우 △발작적인 기침 △야간에 심해지는 기침 △기침 후 고토 등을 하면 백일해를 의심해야 하며, 면역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80%가 감염되므로 신생아·영유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성인은 백일해로 인한 증상과 질병의 경과가 심하지 않지만 백일해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와 생활하 접촉이 많은 산모, 영유아 돌보미,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성인용 백신(Tdap)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고전면 제2회 호박축제 준비 한창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제2회 고전면 호박축제가 배드리공원 일원에서 각양각색의 호박을 비롯해 300m에 이르는 희귀박터널, 코스모스단지 등 볼거리와 소망등 달기, 포토존, 가래치기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최시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에 고전면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근 이장협의회, 토종호박작목반, 단호박작목반, 지역 사회단체 회원, 면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덩굴류 모종심기와 축제장 주변의 풀베기를 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이장이 참여하여 코스모스 보식작업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하동읍 독가촌 정착마을에 상수도 공급

지난 반세기 동안 고지대에 거주하면서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하동읍 동광동·중동 독가촌 정착마을에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동광동·중동마을은 1968년 산림녹화사업 일환으로 과거 청암·화개면 일원에서 화전을 일구며 한 가족단위로 살아가던 화전민들을 이주시켜 형성된 독가촌 정착마을이다.

독가촌 정착마을에는 이주 1세대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현재 2~3세대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산비탈의 고지대에 위치해 그동안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계곡수나 간이상수도 등에 의존해 왔으나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물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동군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건설업체의 재능기부 등으로 지난 6월 초부터 상수도 설치사업에 착수해 2개월의 공기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가촌 정착마을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겪었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게 됐다.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발급 해 드려요

업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군민에게 민원이 많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 발급 및 교부 연장 근무

개요

- 시행일 : 2018. 1. 15 ~
- 연장근무 내용 : 여권 발급 및 교부, 기타 제증명 발급
- 연장 근무일 :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 직장인, 학생 등 업무시간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 적극 활용

사회배려대상군민 여권 무료배송 신청하세요

사회배려대상 군민의 여권 무료배송으로 민원1회 방문 및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개요

- 대상 : 하동에 주소를 둔 사회배려대상 중 여권무료배송 신청 군민
- 시행일 : 2018. 8. 1 ~
- 입증서류 및 수혜범위

구분	65세노인	1-3등급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
입증서류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혜대상	본인	본인	본인	본인

- 지역내 사회배려대상(노인, 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 군민 여권 발급 시 신청

하남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하동군 횡천면은 지난 8월 14일 하남마을회관에서 김영욱 면장, 조승현 이장, 주민 등 20명이 참석해 2018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봄·가을철 건조시기에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의 관행적인 소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다.

녹색마을은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이 소각금지 자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마을 중 산불발생 여부, 소방서 출동일지, 소각행위 헬기감시 적발 실적 등을 참고해 산림청이 선정한다.

하남마을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이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방지에 노력해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등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욱 면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장 대신 본인서명으로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인감 도장이 별도로 필요가 없음.
- 인감을 주소지 행정기관에 등록(신고)할 필요가 없음
-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시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해킹 및 도용불가

제도별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시행일자	1961. 9. 23	2012. 12. 1	2013. 8. 2
사전절차	사전 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 승인신청(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무인) 확인	신분증(무인) 확인	온라인상 확인(공인·전화인증)
수수료	600원	600원	무료

하동아트갤러리 전시회 안내

전시명 : POP ART 유쾌한 상상展

전시기간 : 7월 19일(목) ~ 9월 17일(월)

전시작품 : 26점

참여작가 : 변대용, 엔조, 유은석, 이조흠

전시장소 : 하동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

관람시간 : 10:00 ~ 18:00

전시문의 : 055) 880-2403

관람료 : 무료

전시내용 : 휴가철을 맞아 갤러리의 문턱을 낮추고, 미술을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모드를 위한 예술 팝아트 ‘유쾌한 상상’展을 마련 하였습니다.

팝아트는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주류 중 하나로 1950년대 대중 매체와 광고 등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대중미술입니다. 2000년대 초 시작된 한국의 팝아트는 우리네 정서와 예술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늘어나면서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림마당

하동을 '우리 동네 사랑 곳간' 냉장고 이전 운영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공유와 나눔의 냉장고' 우리 동네 사랑곳간이 하동시장에서 하동읍사무소로 확대 이전해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기부자 : 시장상인, 가정, 제과점, 과일가게 등 주민 누구나
- 기부가능 식료품 :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 및 청과물 위주
- 기부금지 식료품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하기 쉬운 음식, 조리된 음식
- 이용자 : 주민 누구나

하동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하동군보건소는 10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별로 주민의 건강수준 등을 파악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군민의 건강 수준과 흡연, 음주, 정신건강 등 18개 영역을 조사한다.

'건강조사 참여 Energy 지역건강 Synergy'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건강조사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 4명이 조사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 1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하동군보건소는 방문 조사에 앞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전 가구에 안내문과 가구선통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군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를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할 경우 조사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

그 외 건강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부서(880-6622)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치매진단을 받으셨나요? 치매치료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하동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기준 :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 지원 (병원처방 약제비 기준)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

신청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880-6657)



횡천면 농업경영인회 찰옥수수 키워 어르신께 나눔

하동군 횡천면농업경영인회(회장 이정식) 회원 20여 명은 지난 7월 26일 직접 심고 키운 찰옥수수를 수확해 지역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제공했다.

지난 5월 김한철 대덕이장 소유농지 2000㎡에 씨앗을 뿌려 3개월간 정성들여 가꾼 찰옥수수를 1000kg 수확해 경로당 18곳 및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 50세대에 전달했다.

2016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옥수수 나눔 행사에 재배 노하우가 더해져 지난해보다 쫄득하고 당도가 높아져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농가 : 2018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신고서 제출한 농가 중 이행계획서 제출기간(2018년 9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완료 못하는 농가

접수기간 : 2018년 9월 24일까지

접수부서 : 환경보호과

-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건축사무소, 축협 경유 가능

제출서류 : 적법화 이행계획서

- 위반내역, 현황측량성과도 또는 측량계약서, 위반요소 해소 계획,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악취 적정관리 방안 등 포함

기타사항

- 건축사무소와 적법화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는 건축사무소 통해 제출 가능
- 축협 조합원인 농가는 축협 통해 제출 가능
- 그 외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가에서 작성 문의시 아래 부서로 연락 바람

총괄부서 : 농축산과 축산경영담당(880-2432)

불법건축분야 : 도시건축과 건축행정(880-2132)

증·개축분야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880-2102)

가축제한구역 및 분뇨배출신고 등 환경분야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880-2572)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크개는 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가 궁금해요.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쉼터운영,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하동군치매안심센터는 하동군보건소 1층(하동군 하동읍 군청로31)에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방문 또는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하동군치매안심센터 055-880-6657(평일 9:00~18:00)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나도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하동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 된 자 또는 치매의심이 뚜렷한 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자에게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는 무료이며, 감별검사는 만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자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치매진단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만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자), 사례관리서비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 지원, 자원연계서비스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봄부담분석 및 치매환자가족 상담, 가족교실, 가족지지도임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2회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축 제 명: 제12회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기 간: 2018. 9. 21.(금) ~ 10. 7.(일)

장 소: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일원 (42ha)

슬 로 건: 청자빛 북천하늘! 억만송이 꽃향기

대표 프로그램

농산물 즉석경매, 황금코스모스를 찾아라, 코스모스 웨딩 꽃길만 걸자, 코스모스 가요제

방문객 참여·체험 프로그램

메밀묵 빨리먹기 및 메밀묵 만들기, 코스모스 종이비행기 날리기, 외국인 장기자랑, 가족(동아리, 친구) 공연, 꽃밭에서 추억 만들기, 꽃잎 띄우기, 꽃물들이기, 민속놀이(제기, 투호 등), 코스모스 압화, 허브체험(죽옥, 미스트 만들기 등), 농산물 체험(수확 및 김치 담그기 등) 등

차별화 프로그램

코스모스 연날리기, 분재전시, 황토염색, 메밀차·호박떡 시식회 등

연계행사

호박축제 및 전국 박과채소 경연대회, 이병주 국제 문학제

혈관숫자 내리GO 행복지수 올리GO 으쌔으쌔 힐링 건강교실 운영 안내

기간: 연중(무료) 매주 수요일(09:30~11:30)

장소: 보건소(다목적실, 건강증진실)

대상: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중 희망하는 지역주민

내용: 운동요법, 산림요법, 미술요법, 공예요법, 식이요법, 원예요법, 레크리에이션 등

문의: 보건소 통합사업실(☎880-6748, 6749)



청자빛 북천하늘!
억만송이 꽃향기



제12회

하동북천

꽃축제

코스모스·메밀꽃



2018.9.21~10.7 (17일간)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70번지

www.cosmosfestival.co.kr

|주최·주관| 하동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 영농조합법인

☎ 안내(문의) : 055)880-6331~5

제4회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

2018. 8. 31. (금) ~ 9. 02. (일)

하동 송림공원 · 섬진강 일원